

2022 한국성폭력상담소  
치유회복 프로그램  
내가 단단해지는 시간, 글적글적

# 홀로 아파하고 있을 당신에게

: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홀로 아파하고 있을 당신에게

# 목 차

여는 글	~~~~~	06
고유	고소한 일기 ~~~~~	08
두부고양	위로, 자책, 질책 ~~~~~	35
	미련한 또는 강한, 나는 살아있다 ~~~~~	61
목화	내가 죽던 날 ~~~~~	69
	그럼에도 불구하고 ~~~~~	74

소신

여성의 몸이라는 이유만으로



83

승진

액플이



97

무거동



104

# 여는 글

계절이 초여름이 되어가던 2022년 5월부터 6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내가 단단해지는 시간, 글적글적>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작가인 은유 선생님과 함께 총 6명의 참여자는 매주 써온 글을 소리 내어 읽고 합평했습니다. 다른 글의 인상 깊은 표현에 감탄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같이 화를 내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 사람의 의견과 응원을 받은 글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함께 글을 쓰는 것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홀로 아파하고 있을 당신에게 :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참여자들과 함께 정한 제목입니다. 함께 글을 읽으며 어떤 표현은 피해생존자로서 깊은 공감을 주기도 했고, 각자가 살아온 이야기마다 볼 수 있는 힘

과 의지는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목과 같이 우리가 나눈 응원과 연대의 시간을, 이야기를 홀로 아파하고 있을 당신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문집에는 총 5명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글쓰기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하여 서로에게 빛나는 말을 해주고 진심을 담아 글을 쓴 **고유, 두부고양, 목화, 소신, 승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멋진 글이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끌어 준 **은유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안과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 고유



‘우리의 소망은 수천 가지지만 희망은 단 한 가지, 그것은 삶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나의 삶이 의미가 있다면 나의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대단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말이 아니다. 사실 그렇게 믿는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성폭행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끈질기게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애쓴 기록이다. 당신도 나도 함께 희망하며 살 수 있기를.



# 고소한 일기

2021년 8월 15일

## 해도 되는 줄 알았지

“아 아파!” 그날 아침 내가 가장 먼저 한 말이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리고 두 번째 한 말이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해도 되는 줄 알았지.” 였다.

10년 넘게 매일 수면제를 먹고 자는 내게 아침은 늘 힘겨웠다. 약 기운 탓에 맑은 정신으로 깨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 약 복용량이 늘어 잠에서 깨는 것이 더 어려웠다. 깨어나고 싶어 잠시 눈을 떴다가 약 기운 때문에 다시 잠들기 일쑤였다. 내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어려워 남자친구에게 깨어날 때까지 전화를 걸어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 그런 남자친구가 내게 한 것은 ‘준강간’이었다.

준강간이라는 용어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D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으며 처음 들은 말이었다. 법률상 ‘강간’은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

로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뜻하지만,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간에 준한다’는 뜻이리라. 그 후 8개월이 지난 뒤 읽은 책에는 이렇게 쓰여있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강간으로 인지하지 못했고 사건을 신고하기도 꺼렸다.

- 강간이 데이트 상대에 의해 발생한 경우
- 이전에 가해자와 합의 아래 성적 접촉을 한 경우
- 가해자의 폭력 정도가 약했던 경우

...그녀들은 ...성폭력이 발생한 구체적인 정황(술집에서 남성을 따라 나간 것이나 약물을 복용한 것 등)과 관련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다.

\_로빈 월쇼, 「그것은 썸도 데이트도 섹스도 아니다(I never called it rape)」

나의 경험은 책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라고 소개한 3가지 경우에 모두 부합했다. 당시의 나는 남자친구와 사귀기 지 3개월 정도 된 상태였고, 사건 이전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으며, 남자친구가 내게 소리를 치거나, 내 의사를 무시하거나, 내 집에 찾아와 마음대로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용하는 일이 잦았다. 혼란스러웠고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정신은 우리의 관계가 폭력적임을 인정하는 것과 남자친구의 사랑한다는 말 사이에서 갈피를 잃고 헤매고 있

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다. 통증 때문에 눈을 떴고 몸이 굳었다. 남  
자친구는 내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찢  
어지는 듯한 고통에 왜 그랬냐고 소리쳤지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  
때까지 알지 못했다. 그 뒤의 기억은 거의 나지 않는다. 하지만 책에서  
말하듯 나는 스스로가 이유 없이 미웠다.

2021년 8월 18일

###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까지

며칠 뒤 산부인과에 갔다. 질 내외부가 많이 부어 붓기를 가라앉히는  
항알레르기 주사를 맞았다. 소음순 껍질이 벗겨졌다며 연고를 처방받  
았다. 의사는 방광까지 이상이 있을 수 있다며 방광 초음파를 보았다.  
염증이 심해 먹는 약을 처방받았다. 그 뒤 생리 기간을 제외하고 2주간  
매일 산부인과에 갔다. 의사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까지 까지냐, 뭘  
끼고 했냐”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의사는 “질 안쪽이 다  
벗겨져서 화상 입은 것처럼 헐어있으니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

3개월 뒤 고소를 결심하고 다시 산부인과에 갔을 때, 당시의 부상이  
성폭행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진단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내 목소  
리는 떨렸고 자신이 없었으며 말을 자주 멈추었다. 의사는 질겅한 표정

으로 말했다. “내가 그런 말 했던 거 나는 기억도 안나! 성폭행 당했으면 대학병원에 갔어야지, 왜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야지!” 의사는 진단서를 성폭행과 관련지어 써줄 수는 없다고 했다. 병원에는 진료 당시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는 의무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데스크의 간호사는 서류가 왜 필요하지, 어디에 제출하려 하는지 물었고, 사정을 전해 들은 담당 간호사는 데스크의 간호사에게 조용히 얘기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처럼 대학병원이 아닌 지방의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성폭력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런 상황을 겪었을까? 마땅한 진료 의무기록도, 외상에 대한 진단서도 받지 못하고 병원을 나왔어야 했을까? 그날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약과 주사 처방, 방광 초음파에 대한 의료비 납입영수증 뿐이었다.

산부인과에서 성폭행 피해에 대해 밝히고 도움을 청하는 일은 마치 감히 말해서는 안되는 볼드모트의 이름을 부르는 일 같았다. 볼드모트는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세기의 악당으로, 너무 무시무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됐다. 어쩔 수 없이 그가 언급되어야 할 때는 다들 겁에 질린 얼굴과 주눅들은 목소리로 “누군지 알지”하고 그의 이름을 암시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주인공 해리포터는 그의 이름을 감히 부른다. 고난과 역경이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지만 해리포터는 결국 볼드모트를 물리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

들이 죽었지만, 그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을 살리는 일이기도 했다.

2021년 8월 20일

## 누구에게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친구들에게도 바로 이야기하지 못했다. 부끄러웠다. 30대 중반이나 되어서 남자친구에 대해 징징대며 고민 상담을 하는 것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상담소를 찾았다. 나는 당시 사건에 대해 ‘내가 자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한 일방적 성행위’라고 묘사했다. 상담자는 “그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나는 상담사의 말을 믿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바빴다. 그것이 그 일을 폭력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보다 나아보였기 때문일까? 나는 그 일이 ‘폭력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다음 달이 되어서야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있었다.

성폭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강간을 당한 느낌이었지만,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_ 로빈 월쇼, 「그것은 썸도 데이트도 섹스도 아니다(I never called it rape)」

2021년 10월 4일

지연: 선생님, 그거 성폭행이야.

이상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끝이 났고, 상대방의 말대로 '누구에  
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그것을 잇는 일 또한 그랬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혼란은 더 커졌고 나는 점점 더 분노하고 있었  
다. 그제서야 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친구는 말했  
다. "선생님, 그거 성폭행이야." 눈앞이 아찔하고 뒤통수가 얼얼했다.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밤이 되면 눈물이 났다. 대개 정곡을 찔렸  
거나 어떤 진실을 깨달았을 때 그렇듯이. 그것이 성폭력임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한 관계는 범죄가 되는 것이었다. 그것을 인정하는  
일은 내가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믿었다는 것에 대한 무능감과 치욕까  
지 인정하는 것을 포함했다. 게다가 고소를 한다는 것은 가해자의 보복  
에 대한 두려움과 지역사회와 낙인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가 견딜 수 없이 한심하고 작아지는 일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부끄러웠다.

친구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교사였다. 머리를 박박 밀고 등 뒤에 FEMINIST라는 글자가 박힌 점퍼를 입고 다녔다. 그리고 몇 해 전 교내 강제추행의 경험을 고발했던 이였다. 친구는 고소 기간 동안 나의 보호자이자 비상 연락망이 되어주었다. 나는 이제 페미니스트가 세상을 구한다는 말을 믿는다.

2021년 11월 19일

### 왜냐면 싸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고소를 결심하고 지역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다. 지역 상담소에 서 추천해준 여성 변호사였다. 변호사는 내가 작성한 고소장을 읽어보더니 “사건 이후로 성관계했어요?”라고 물었다. 사건 이후로도 남자 친구는 내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성관계를 시도했다. 변호사는 질문을 이어갔다. “몇 월, 며칠에 몇 번이나 했어요?” 내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그는 “남자친구가 감옥 가면 어떨지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싸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남자친구가 나 때문에 감옥 가는데 죄책감이 든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밤길에 벽돌로 뒤통수 맞고 끌려가서 성폭행당했으면 생각 안 해도 돼. 근데 한때 사귀었던 사

람이잖아요. 내가 이쪽 분야에 전문가라면 전문간데, 검사·판사도 이걸 성폭행이라고 인정해줄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결혼해서 별별 일을 다 겪었을 텐데, 성관계에 있어서는 나나 그 사람들이 선생님보다 한참 선배잖아. 나도 늦게 짓는 편이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아.”라고 했다. 지역 상담소에서 설명한 변호사는 한때 국선 변호사로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마주한 변호사는 성관계와 성폭행을 분간하지 않았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그 둘을 같은 범주로 분류한 것처럼 확신에 차 있었다. 그에게 성폭행이란 밤길에 모르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 끌려가는 경우만을 뜻했다. 그 외엔 그가 정의한 성폭행의 범주에 끼지 못했다. 그에게 연인 사이에서의 성폭행이란 성관계의 일종이었을까? 남편에게,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맞고, 찢어지고, 우는 여자들의 얼굴이 내 얼굴에도 겹쳐졌다. 변호사는 말을 멈출 줄 몰랐다. “남자친구 부모님도 선생님 가만들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괴롭힐거야. 그런데도 고소할 거예요? 진짜 고소를 할 거였으면 당일에 했었어야지! 그리고 선생님이 애초에 남자친구를 집에 들여서 약 먹고 자는 모습을 보였으면 안 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나도 젊은데 좋은 생각만 하고 사세요.” 그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길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울었다. 왜냐면 싸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내가 겪은 폭력과 폭언이 나를 아프고 슬프게 하기 때문이리라.



**통념:** 강간을 당하는 여성은, 특히 상대 남성의 집에 가거나 차에 탄 경우라면, 스스로 피해를 자초한 것이다.

**현실:**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도 강간을 자초할 수 없다. 여성이 남성의 집에 가거나 차에 탔다고 해서 그와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_ 로빈 윌쇼, 「그것은 썸도 데이트도 섹스도 아니다(I never called it rape)」

한국성폭력상담소 2009년 상담통계를 보면 사례 중 85%가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였습니다. ...강간·유사 강간의 77.9%, 강제추행의 82.3% ..가 아는 사람이 가해한 경우이고, ...(이것은) 이상하거나 특수한 사람이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직장, 연애, 부부관계 등 평범한 공간 속의 권력 관계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 나의 예민하고 사소한 느낌이라고 치부한 일은 사실 무척 흔한 성폭력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_ 한국성폭력상담소, 「보통의 경험」

2017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결과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 가해자가 남성일 때(94.9%), 가해자는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데이트 상대인 경우가 45.9%로 가장 높았다. 전체 성폭력 피해의 85%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했는데, 이는 성폭력이 낯선 사람, 일부 병리적 개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통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이다.

\_ 한국여성의전화, 「2017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통계 분석」

2021년 11월 29일

Y: 그건 데이트폭력의 특징이에요.

지역의 여성 변호사와 상담 후 나는 스스로를 자책했다. 그의 말대로 나는 사건 이후에도 남자친구와 바로 헤어지지 못했고, 바로 신고를 하지도 않았으며,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기도 했다. 더욱이 그것이 성폭행인지 몰랐다는 것, 그것을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Y활동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사건 이후에도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바로 헤어지지도 못했고.. 그리고 바로 신고하지도 못했고..”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입꼬리는 울음을 참기 위해 자꾸 아래

로 비축대고 있었다. Y활동가는 말했다. “고유님, 그건 데이트폭력의 특징이에요.” 데이트폭력의 특징, 이라는 말은 데이트폭력을 겪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대부분 데이트 성폭력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고유님처럼 그래요. 실제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해를 했다고 해서 바로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나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일은 내가 바보 같아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 내가 제때, 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이건 절대 고유님 잘못이 아니고, 100% 가해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00%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말에 대해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은 정말이었다. 이 일은 가해자가 그냥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이 일은 나의 행실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범죄를 자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폭력의 행사는 오롯이 가해자의 선택이었다. 내가 사건 이후에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또는 바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범행 사실이 사라지거나 상쇄되는 것도 아니다. 조금 더 담담히 말하자면, 그 누구도 내 의사에 반해 나를 강간해서는 안된다. 내가 사건 전후로 어떤 행동을 했건 그것이 나를 성폭행해도 된다는 승낙이나 동의의 표시가 될 수 없다.

Y활동가는 2번에 걸쳐 이루어졌던 경찰 피해자 조사일에 모두 함께 해주었다. 사건으로 처음 만났지만 수사기간 내내 함께 고민해주고 먼 지방까지 내려와 곁을 지켜준 이가 있다는 것은, 믿었지만 등을 돌린 이가 있다는 것만큼 내게 큰 반향이었다. 이 귀엽고 용감한 사람은 이제 내가 오랜 시간동안 믿고 응원할 것을 다짐하는 사람 중 하나다.

누구도 누굴 함부로 할 순 없어.  
그럴 권리는 아무도 없는 거란다. 그건 죄야.

\_ 김수현, 「모래성」

2022년 2월 1일

나도 수면제 먹어봤는데

내가 겪은 성폭행에 대해 이야기한 친구는 단 두 명이었다. 고소를 결심한 뒤 한 명이 더 늘었다. 가해자를 소개 시켜준 나의 이전 직장 동료이자 친구였다. 나와 가해자를 동시에 알고 있으며, 사귀는 동안의 모습을 본 것은 친구 부분이었으므로 나는 그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했다. 앞으로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그의 진술서나 증언이 필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작년 5월, 친구는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교체하고 있었다. 친구는 ‘너도 결혼할 사람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며 소개팅을 해준다고 했다. 상대는 당시 남자친구의 직장동료인 △의 친구라고 했다. 친구의 남자친구와 그 직장동료△, 또 그의 친구인 가해자는 모두 같은 지역의 소방관이었다.

고소를 결심한 것은 12월 경이었고, 친구의 결혼식은 1월 초였다. 내 친구와 그의 남편, 남편의 직장동료들과 가해자의 관계가 얽혀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까지 여러 생각이 오갔다. 친구의 결혼식 날짜와 신고 날짜, 피해자 조사를 받는 날짜들이 겹치지 않게 했다. 고소는 12월 31일 우편으로 했다. 피해자 조사일은 1월 17일로 정했다. 친구의 결혼식이 있고 약 열흘 뒤였다.

결혼식 이후 약 한 달 뒤인 2월 1일에 친구와 만났다.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병원에서 찍은 상해의 사진과 가해자의 자백이 담긴 녹음파일의 일부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만큼 절박했다. 친구는 말했다. “신혼여행 갔을 때 남편의 직장동료인 △가 남편한테 전화했어.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지. 가해자가 △한테 전화해서 그랬대. 여자친구가 수면제 먹고 자는데 자기가 할려고 했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여자애가 고소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친구인 나한테 서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없겠냐는 거야.” 가해자는 고소 사실을 알

게 된 당일, 자신의 친구 △에게 연락해 가해 사실을 떠들었으며, 내 친구와 그의 남편에게까지 그것을 퍼뜨린 것이다. 친구의 결혼식 날짜와 경찰 조사일마저 신경 쓰고 있던 내가 바보처럼 느껴졌다. 친구는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잖아. 네가 신고한 이유가 있겠지 생각했어.” 내가 당시 신고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뒤 신고하게 된 것에 대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야 했을까? 내가 스스로를 성폭행 피해자라고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어떤 변명이 있었어야 했을까?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나도 수면제 먹어 봤는데..” 그 뒤에 이어질 말들을 친구는 고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가 고른 말은 “너는 수면제 먹으면 어떤 상태야?” 였다.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스쳤다. 내가 친구에게 보여준 외음부의 상처 사진과 가해자의 자백이 담긴 녹음파일을 듣고도 친구는 내게 묻는 것이다. 당시 수면제를 먹었던 내가 ‘정말로’ 의식이 없었는지를. 그 질문에 무너져 내리는 내 눈코 입을 뒤로하며 친구는 말했다. “△랑 남편이랑 통화한 거 남편이 녹음해놨어.”

2022년 2월 20일

## 남편 친구 관계에 금이 갈까봐

얼마 뒤 나는 친구에게 그 녹음파일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남편이 사적으로 한 통화인데, 이것을 증거로 썼다가 남편 친구 관계에 금

이 갈까봐.. 내 남편 친구 관계도 있는데 내가 너만 생각하기가 입장이 좀 그래.” 성폭행 가해자를 소개시켜준 △와 남편, 그 둘의 친구 관계에 금이 갈까 봐 녹음파일을 주기 어렵다는 친구를 이해해보려고 나는 몇 날 며칠을 자신과 싸웠다. 친구의 말대로, 또 11월에 만난 변호사의 말대로 사건 이후 그것이 성폭행인지 알지 못했으며, 바로 신고하지도 못한 내 자신에게 그 이유를 다시 오래 따졌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는, 그와 단순히 가볍게 아는 정도라 하더라도 자신이 당한 게 성폭력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자신이 경험한 게 강간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동시에 상대방이 얼마나 크게 자신의 믿음을 배신했는지, 또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는 힘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모두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_ 로빈 월쇼, 「그것은 썸도 데이트도 섹스도 아니다(I never called it rape)」

2022년 2월 21일

## 그 놈이나 그 년이나!

다행히 내게는 성폭행 고소에 대해 조언을 해준 친구도 있었다. 그 친구는 고소 전에도 내가 겪은 일이 성폭행이며, 본인의 경우였다면 고소를 했을 것이라 말했다. 그에게 전화해 소방관 남편을 둔 친구의 언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친구는 내 대신 화를 내주었다.

“뭘 그런 미친 애가 다 있어? 더욱이 증거도 다 네가 보여줬는데! 나 같았으면 네가 말하기도 전에 녹음파일 쫓을거야. 아니, 피해를 입은 너한테 도움은 못 될망정, 그딴 성폭행 가해자랑 친구인 새끼랑 친구 사이에 금 갈까봐? 그 남편이나 개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런 그지 같은 놈도 친구라고 그러는 놈이나, 지 남편 친구 사이 어떻게 될까봐 지 친구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년이나! 그딴 저지같은 성폭행범이랑 친구 관계 금 갈까봐! 그건 친구도 아니야!”

친구는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 그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환자가 동료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추행을 할 때 의료진에게 손대지 마시라고 소리치는 이였다. 친구는 현재 간호사 일을 그만 두고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오히려 분노가 힘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그 상상만으로 마음의 크기가 달라졌다. 분노가 병이 아닌 빛이 될 수 있다면, 태양처럼 빛나는 화를 내는 사람이고 싶다.

.. 권김현영, 「우리의 분노는 길을 만든다」 서평

2022년 2월 22일

C변호사: 사건에서 멀어지세요.

이후 나는 사건에 더 매몰되었다. 내 진술의 신빙성에 허점이 생길까 봐 불안했다. 내가 단 하나의 틈이라도 보인다면 진실은 물거품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강박에 시달렸다. 하루 종일 날짜와 시간별로 사건을 촘촘히 정리했고 제출하지 않은 정황 증거들을 다시 모았다. 친구가 남편의 친구, 그러니까 가해자의 친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통화 녹음파일을 내게 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마치 그들이 가해자의 편에서 그가 빠져나갈 쥐구멍을 하나 더 파놓은 것 같았다. 며칠 동안 정리한 자료를 변호사에게 보냈다.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다.

“고유씨,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고유씨의 회복은 고유씨 본인의 노력이 필요해요. 자꾸 사건을 파고들고 피해자인 것에 너무 빠져들면 안 돼요. 이런 피해입었던 사람은 늘 우울해야 되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래야 돼요? 왜 그 XX같은 인간 때문에? 개가 처벌이 되면 법이 제대로 적용이 된 거고, 개가 처벌이 안 되면 그건 수사 재판과정에서 누군가가 일을 제대로 못했거나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고유씨는 피해자이고, 피해자로서 밟아야 될 법적 절차를 밟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우울해하고 힘들어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고유씨의 정신건강이에요.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긴 싸움이에요, 엄청 긴 싸움. 그 몇 년동안 내내 이려고 있을거예요? 시간이 흐른 뒤에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화나는지 알아요? 내가 그 그지같은 XX 때문에 그 몇 년을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했네, 그거 나중에 뒤돌아보면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이에요. 누굴 위해서? 뭘 위해서 그래요?" 그때 깨달았다. 수사 과정에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있었고, 나는 '증명하지 못하면 넌 피해자도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었다. 내가 대답했다. "제가 행복하게 지내는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변호사가 말했다. "당연하죠. 그 말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넌 피해자니까 계속 우울해야돼'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탄을 받게 되어있어요. 지금 불안에 떨어야 할 건 개지, 고유씨가 아니라구요. 사건에서 멀어지세요."

C변호사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법률 상담을 받은 후 4번째로 만난 변호사였다. 앞서 만난 3명의 변호사는 내 사건이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수면제를 먹고 있는 나의 상태가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C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을 듣자마자 말했다. “어렵지 않은 사건이에요. 기소될 거예요.” 약 4개월 후, 내 사건은 기소되었다.

2022년 4월 9일

진짜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통계학적으로 말이 안돼요.

대학원 동기인 동생이 소개팅을 나가보지 않겠냐고 했다. 오랜만의 연락이라 반가웠다. 그런데 내가 소개팅을 해도 될까? 성폭행이 일어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면 비난받지 않을까?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이 아닐까? 만약 사귀게 되더라도 섹스는 어떻게 할 건데? 머릿속에서는 내가 남성과 둘이 만나고 웃고 떠드는 모습이 ‘피해자답지 않은’ 증거로 채택되어 재판장에서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변호사의 말대로 사건에서 한 발자국 멀어지기로 마음먹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지 않기로 다짐했다. 동생에게 소개팅을 하겠다고 했다.

남자는 OO읍에 살고 있다고 했다. 최근 OO읍에서 일어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뉴스에 여러 번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되었다. OO읍은 작은 도시였고, 우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교사인 나는 학생들이 성관계 시 여학생들이 다치고 상처받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느 성범죄들이 그렇듯, 남학생에 의해 여학생의 신체가 일방적으로 다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남자는 말을 뺐었다. “아니, 남자가 하다 보면 (질이) 좀 찢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내 귀를 의심했고, 남자는 나를 의심했다. 남자는 말했다. “고유씨가 이야기하는 사례들이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통계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아니,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많은 성폭력의 경험과 사례들을 겪었다는 게 통계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니까?” 남자는 끝까지 내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친한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은 자리에서, 직업과 직장까지 밝힌 상태에서 내가 성폭력 사례에 대해 거짓말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사회는 평범한 남자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충격적 사실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차라리 그런 주장을 하는 여자가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싶어한다.

로빈 월쇼, 「그것은 썸도 데이트도 섹스도 아니다(I never called it rape)」

여성의 느낌은 객관적이지 않고 예민한 히스테리이니 믿을 만하지 않다는 남성 중심적인 통념은 오래전부터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여성을 향한 폭력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해 발생합니다. '진짜야? 확실해?'라고 물을수록 피해자가 자기 의심에 빠질 거라고 전제하고, 주변에서도 피해자의 말보다 가해자의 말을 더 신뢰할 거라고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_ 한국성폭력상담소, 「보통의 경험」

남자는 마지막까지 입을 다물 줄 몰랐다. “혹시 페미예요?” 아, 네. 너 같은 예비 성범죄자 걸러내는 페미다, 이 한남 새끼야. 너는 통계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그냥 재수 없어.

2022년 4월 12일

오늘 아침 000이 성기를 본인 음부에 삽입했습니까?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 방문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였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권했지만 가해자는 거부했고, 나는 하겠다고 했다. 조사관은 30-40대 남성이었다. 조사관은 말했다. “가해자 측은 어떻게 주장하는지 아시죠? 피해자분이 당시 깨어있었고, 삽입하기 좋게 엉덩이를 대줬다고 주장하

고 있어요.” 눈이 빨개지고 호흡이 가빠졌다. 그와 관계없이 조사 장소로 들어갔다.

조사관은 거짓말 탐지기 장치를 왼손 손가락 3개에 꽂고, 가슴 위쪽과 배꼽 부분에 둘렀다. 가슴 위쪽에 두른 장치가 흘러내려 2번을 다시 고정해야 했고 배 부분도 답답해 몇 번을 다시 조정해야 했다. 나는 조사관이 여자였다면 어땠을까를 몇 번이고 되뇌었다.

조사관은 거짓말 탐지기 본 검사에 앞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질문들을 하겠다고 했다. 거기에는 나의 직장명과 생년월일, 가족관계와 대학 시절 이야기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언제 000(가해자 실명)이 성기를 본인 음부에 삽입했습니까?” 등의, 가해자 실명을 포함한 당시 성폭행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들이 반복되었다. 나는 질문 속 가해자의 실명을 ‘가해자’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사관은 “가해자라고는 할 수 없고요, ‘본 남자친구’로 바꿔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조사관은 가해자의 이름을 3번 더 불렀다. 아마 질문지의 질문들이 가해자의 이름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리라. 조사관은 곧 이를 정정했으나, 가해자의 이름과 함께 계속해서 ‘성기를 삽입하는’ 질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질이 휴지처럼 찢어지는 것 같았다. 조사관은 결국 검사를 중지했다. “오늘 아침 000(가해자 실명)이 성기를 본인 음부에 삽입했습니까?”라는 명백히 거짓인 질문에 “아니

오.”라는 명백한 대답에도 불안도가 높게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응답의 불안도가 높을 경우 그 응답은 신뢰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그렇게 본 검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중단되었다.

2022년 4월 24일

### 엉덩이를 뒤로 빼서 좌우로 움직여

나의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경찰 수사 기간동안 짐작만 했던 가해자 측 주장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있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자 피해자가 눈을 뜨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좌우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그 뒤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정리하자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는 말이다. 수사 초기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으나 합의는 원한다’고 했던 말과 평행한다.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 앞서 나는 또 무슨 말들에 휩쓸려 쓰러지게 될까. 머리는 이 상황과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애써 주장하지만 마음은 자꾸 길을 잃고 고개를 숙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기록한다. 매일매일 울면서 희망을 훈련하는 날들

이 계속된다.

나는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도 고소해하지 못할 것을 안다. 내가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해도, 등을 돌렸던 가족과 친구들이 내가 옳았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해도, 이 모든 싸움이 끝난다고 해도 나는 '내가 이겼다'고 고소해하지 못할 것을 안다는 말이다. 하지만 고소해하고 싶다. 나는 주저앉지 않고, 기어이 신고를 하고, 울면서도 법정에서 할 말을 다 하고, 또 내 삶에 대해 이기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누리고 싶다. 그리고 나를 도와줬던 이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이들을 도우면서, 그들과 함께 기어이 살아내고 싶다. 나는 울면서 상처받으면서 죽을 것 같이 살면서도, 죽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서, 개가 전봇대 아래 오줌을 갈기듯이 무심하고 씩씩하게 아, 고소하다! 하고 말하고 싶다.



책의 머리말부터 바코드가 찍힌 뒤표지까지, 주인공은 단 한 명뿐이다. 당신이 삶을 써내려온 작가도 단 한명 뿐이다. 큰 슬픔이 당신의 펜을 빼앗아가더라도, 결말을 바꿀 수 없다. 그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함부로 쓸 수 없다.

\_연정,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겠지만 오늘 밤은 어떡하나요」

”



## 두부 고양



자주 아픈 몸과 괴상한 취향의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아 인문학을 공부하며 20대를 보냈다. 30대에는 이해보다도 다정하고 싶어져서, 명상과 치유적 글 쓰기를 하며 보낼 계획이다.

쓰려는 사람보다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올 수 있었던 글이다. 홀로 아팠고 왠지 숨겨왔던 일이었지만, 글로 썼더니 "함께" 가 되었다. 겁이 나서 몇 번이고 삼키려던 글이었지만, 글동료들의 끊임없는 응원 덕에 겨우 내놓았다.

## 위로, 자책, 질책

몇 년이 지나도 꺾끄러운 기억이 있다. 2011년 6월,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 다행히 자주 생각하지 않는다. 자주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다. 그 사건에 대해 들어온 많은 위로, 자책 그리고 질책들. 그 말들이 남긴 영향을 틈틈이 생각한다. 대부분의 위로는 와닿지 못하고 멀리 빛나가곤 했다. 자책과 질책은 상처를 후벼파고, 나를 산산조각 내었다.

### 위로 1

#### 만약 내 잘못이 아니라면 ...

영화 “굿윌헌팅”의 유명한 대사, “네 잘못이 아니야”는 마치 마법 주문과 같았다. 영화 속에서 상담사는 청년에게 두 번, 세 번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준다. 청년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한다. “알아요, 안다니까요.” 네 번째로 말하자 청년은 화를 내며 상담사의 몸을 밀친다. 그 래도 상담사는 진심으로 반복해 말한다. “네 잘못이 아니야.” 결국 청년은 울음을 터트리며 마음을 연다. 아쉽게도 내 마음은 그렇게 마법처럼 열리지 않았다.

사건이 일어나고 아침이 밝았다. 오전 11시, 나는 대학교 심리상담실에 앉아있었다. 진로 때문에 압박이 심해 시작한 상담이었다. 몇 주 전 이곳에 들어서던 나는 이런 일을 겪을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래서일까? 상담실에 들어가면 절대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말자고 다짐했다. 30분이 후 어느새 털어놓고 있었지만 말이다. 가해자는 내가 진로로 선택한 분야의 멘토였기에,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여기 오기 바로 전이에요?” 상담사 선생님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침착히 상황을 확인했다.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어젯밤이요),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삽입은 없었지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있었는지(아뇨, 자극하면 해코지 당할까봐 저항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어질 일인지(...연락을 끊을까 해요. 하지만 그려면 제 꿈을 다 접어야겠죠.)를 조심스레 점검하는 듯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상담사 선생님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아직 수련생인 그녀에게 버거운 내담자가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힘을 주어 말했다. “지혜씨 잘못이 아니에요.”

공포, 어째서인지 그 말은 들은 난 심한 공포감을 느꼈다. 첫날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들었을 때도, 그 말이 주는 공포감은 여전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사건을 성폭행 사건으로 보아

야 하는지 아닌지 결정하지 못하고 힘들어했다. 상담사 선생님은 그런 나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셨다. 그런 그녀에게 마치 영화 ‘굿윌헌팅’의 반항적인 청년처럼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 날도 있었다. 되돌아 보면, 내 마음이 듣고 싶어 하는 말과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 자책 1

### 내가 잘못된 게 있어, 그것만 고치면 안전할 거야. 그렇지?

나의 마음은 반드시 내가 잘못된 것을 찾고 싶어 했다. 지금 당장 내 잘못을 기다란 목록으로 찾아내 적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그래야만 했다. 내 잘못이 아니라면... 너무 막막하지 않은가? 내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그게 뭐든, 그것에 매달릴 참이었다. 내 잘못이 여러 가지여도 좋았다. 오히려 더 좋았다. 예방하고 또 예방해도 모자라지 않으니까. 그런데 없다니? 내가 잘못된 것이 없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건 언제든 또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걸까?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계속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문화예술 쪽 일을 선택해서 벌을 받았나? 분수에 맞지 않은 욕심을 가졌나? 아니면..

가해자가 가해자가 되기 전, 그는 나의 멘토였다. 그는 대학교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강사 겸 기획자였다. 가해자와 대학교가 함께 추진하는 큰 프로젝트에서 내가 인턴으로 일하면서 그를 알게 되었다. 프로젝트가 열리는 장소가 마침 멘토와 가족이 사는 동네였다. 자연스레 그의 가족들, 아내분과 어린 자녀들까지도 자주 만나 친해졌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 즈음, 그는 내게 자신의 제자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해왔다. 이미 그에게는 여러 수제자들이 있었고, 모두 능력을 인정받으며 활동 중이었다. 좋아하는 일로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번듯하게 가족을 건사하던 그 사람은 나에게 롤모델 그 자체였다.

나는 그에게 성숙한 지지를 받는다고 느꼈다. 부모님에게 받고 싶었던 지지였다. 부모님은 공무원이 아니면 덮어놓고 일단 화부터 내셨다. 나의 취향이나 적성에는 오래전부터 관심도 없으셨다. 오로지 돈, 안정, 공무원. 반면에 멘토와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내 심리상태와 미래에 관심을 가지며 자애롭지만 현실적인 충고를 해주었다. 일찍 여윈 나의 조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느낌일까 상상했다. 이런 인연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어느 날, 준비하던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여러 책을 추천해주더니 정리해오라는 숙제를 내주셨다. 그리고 2주 뒤, 그가 숙제의 검사를 받으러 오라며 호텔 방으로 불렀다. 나는 그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타인을 믿어버린 게 잘못이었나? 역시 꿈을 쫓 게 잘못인지도 몰라. 애초에 왜 나는 그런 것을 좋아했을까? 왜 예쁘고 아름다운 것에 끌리는 걸까?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왜 그 대학교에 갔을까? 수능을 더 잘봤더라면, 아니 더 망쳐서 다른 학교에 갔더라면 ... 그 날로 이어지는 나의 모든 것과 선택들, 취향과 장점과 단점이 모두 치명적인 실수로 느껴졌다. 잘못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온몸이 쿵쾅거리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니 토하고 싶었다. 나의 구역질나는 부분들을 토해내 그것과 분리되고 싶었다. 성폭행당한 시간의 나, 그 장소로 돌아가던 나, 그를 믿은 나... 내 안의 못나고 어리석은 모든 부분을 토해내고 싶었다. 그렇게 토해낸 나를 버리고 멀리 도망가고 싶었다. 나머지 완벽하고 예쁜 나만 데리고.

## 위로 2

###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무언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는 내 마음과 공포심을 어설피게 말로 표현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때 상담사 선생님은 침착하게 말해주었다. 아무리 여자가 옷을 다 벗고 있다고 해도,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은 성폭행을 하지 않는다고. 만약 단둘이 밀실에

간히는 상황이 와도 보통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주셨다. 그러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단숨에 범죄자로 바뀌어 보이지 않았다. 기쁨과 슬픔, 선과 악, 정상과 비정상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흔들렸다.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기다리며 고민하던 상담사 선생님이 입을 열었다.

“나이가 든 두부고양씨가 어린 대학생 남자를 숙제 검사를 한다며 굳이 호텔방으로 부를 것 같아요?”

“...음... 아뇨. 낮에 카페에서 보던지 전화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만약 어쩔 수 없이 한 방에서 밤에 묵게 되면 지혜씨는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고민하던 나는 말했다.

“배고프냐고 물어보고 먹을 걸 챙겨줄 것 같아요. 피자를 시켜준다면...”

나와 선생님은 ‘피자’에서 왠지 웃음이 나서 웃었다. 그리고 나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따로 떨어져서 잘 것 같아요. 남학생을 침대에서 재우고, 제가 바닥에서 잘 것 같아요... 저는 침대를 싫어해서요. 사실 애초에 다른 방에서 재우려고 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보통의 어른, 범죄자가 아닌 선량한 사람이 할 법한 행동이에요. 범죄의 의도가 없었던 사람은 호텔방으로 부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호텔 로비의 카페도 있잖아요. 지혜씨 말대로 전화도 되고요. 또 스스로가 불편해서 목고 가라느니 하는 말도 안 할 거라고요.”

단호하고 확신에 찬 그녀의 말들에 조금은 공포감이 진정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왜 이 당연할 걸 몰랐을까’ 하는 후회와 수치심이 올라왔다. 그게 수치심이라고 언어화한 것도 몇 년 뒤의 일이니, 그때는 상담사님께 내 상태를 전달할 수 없어서 혼자 끄끙 앓았다. 호텔방으로 부른 것부터 의심해야 했는데! 그걸 몰랐다니!! 또다시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내가 너무도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애초에 외닿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룻밤의 사건이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상처는 골짜기 같았다. 기나긴 자책이 메아리처럼 울리는 깊은 골짜기. 9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른 자책과 자기의심을 하나씩 잠재운

다음에야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여전히 가끔 마음의 힘이 약해지면 그 골짜기에 처박히기 일쑤다. 그러나 사건 직후에 어떤 말도 와닿지 못하고 마법처럼 치유되지도 못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 자책 2

### 혹시...

그 사건은 내 마음과 몸, 세상에 대한 믿음과 가치관을 모두 부정하고 틀린 것으로 만들었다. 나의 꿈과 계획이 무너져서 오갈 데 없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나 자신의 판단력을 더이상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토하고 도망가고 싶은 '나 자신'에 또 다른 내가 추가되었다. 스스로를 믿었던 자신감 넘치는 과거의 나. 나는 그런 과거를 비웃고 또 비웃었다.

가해자를 믿은 사람은 바로 나였다. 숙제를 봐줄테니 자신의 방으로 오라는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침에 호텔방에서 나와서 비로소 혼자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나는 방금 전까지 일어난 일이 뭔지 정의하지 못했다. 다만 '싫다'라는 감정과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실망감은

분명했다. 이후로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하나같이 내 편이 아니었다.

가장 처음 든 생각은 내가 가해자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가해자의 부인과 아이들을 모두 알았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아이들이 나를 잘 따라서 자주 돌봐주곤 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술래잡기를 했다. 행복하고 밝고 건강했던 가정과 성폭행 가해자인 그가 잘 연결되지 않았다. 세상 경험이 적었던 나에게 성폭행 가해자란 어둡고 칙칙한 소굴에서 살 것 같았다. 그리고 그런 스스로가 어리석은 반푼이처럼 느껴졌다. 수많은 범죄와 사기의 피해자들이 바보라서 속은 게 아닐텐데 말이다. 범죄자들과 사기꾼들도 대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세상의 좋은 면만 보며 살아온 나, 선과 악이 분명한 TV 드라마인 양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온 자신이 어리석고 미숙하게 느껴졌다. 너무도 미덥지 못하게 느껴졌다.

이후 가해자가 사건 중간에 푸념처럼 늘어놓은 말들을 가까스로 떠올렸다. ‘나는 원래 막 사는 사람이야. 마음대로 하고 살아.’ 또는 ‘예전에 만났던 여자(불륜상대)가 내게 돈을 받아내고 떠나버렸어. 어떻게 몸을 섞어놓고 그럴 수 있지?’ 그 말들을 한참 후에야 기억해내었다. 그때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다. 외도든 성폭행이든 그에게겐 라이프스타

일이었다. 내가 파괴한 완벽한 가정이라는 것은 없었다. 처음부터.

### 자책 3

#### 혹시 그래도 혹시...

그다음으로는 혹시 내가 가해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 적이 있는가였다. 방을 뛰쳐나오지도 못했고 저항도 하지 않았던 나를 떠올리며 혹시... 내가 원했던가를 물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더라면 치떨렸을 그 질문들을 스스로가 물었다. 하나하나의 질문을 문장으로 만들고 감히 스스로에게 묻는데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질문과 답변을 나는 며칠이고 이어갔다.

선생님이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을까?) 옷을 너무 캐주얼하게만 입는 나에게 패션도 실력이라며 핀잔을 들은 적도 있을 정도다. (여성적인 매력을 어필한다는 오해는 절대 생겼을리가 없다.) 사진 한참 전에 그가 내 가슴을 두고 너무 작다는 언급을 했을 때, 나는 호탕하게 웃었다. “맞아요. 그런데 작으면 편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오히려 기분 나빠했다. 너무 무례한 발언이라면서. (그때 이미 나를 그런 시선으로 본 건가? 내가 눈치를 챘어야 했던 순간이 그때인가? 아니면 그 호탕한 반응을 자신에 대한 호감으로

오해? 보통 그러나?) 혹시..

그러니까 혹시...

가장 힘든 질문은 혹시나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이라도 원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누구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증명하기도 힘든 부분 말이다. 나에게서는 이 질문이 제일 힘들었다.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쇼파에 앉아있던 장면이 생각났다. 내가 방에 들어가고 얼마 안있어서 그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그의 흰 반팔 내의와 짧은 흰색 면팬티 차림에 나는 당황했다. 하지만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태도로 바로 속제 이야기를 꺼냈고, 나도 그 이야기에 집중했다. 하지만 왜 속옷 차림으로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피드백을 해주는지, 속옷에 가해자의 신체는 왜 저리 두드러지는지 의아했다. 그 선명한 불쾌함과 찡그렸던 내 얼굴이, 내가 그를 성적으로 느끼지 않았던 증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누구에게 물질적 증거로 들이댈 수도 없고 어쩌면 신경도 안 쓸테지만, 적어도 나에게 유독 이 답변이 큰 안도감을 주었다.

## 자책 4

### 못나서, 직장이 두려워서, 경제력이 약해서

그렇게 안심을 할수록 하나씩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마비된 듯 아무것도 못 하던 내가 처음으로 발끈했던 순간이 있었다. 사건이 벌어진 후에 그가 말했다. “내가 너 대학원도 보내주고, 용돈도 줄게. 다 지원해줄게. 너는 걱정 말고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라.” 자신과 이렇게 가끔 만나면 금전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암시에 나는 벼락을 맞은 듯 놀랐다. 머리끝에서 척추, 그리고 발끝까지 차가운 것이 뚫고 지나가는 듯했다.

‘나보고 창녀가 되라는 말이구나.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이곳에 온 건 제자로 온 거지 몸을 팔러 온 게 아닌데. 나는 가난한 건 참아도 그건 못 참아. 돈 없이 살아가더라도 당당하게 살고 싶어. 이건 아니야. 세상에.’

그가 처음에 은근슬쩍 가까이 올 때도, 어깨에 손을 올릴 때도 나는 그저 일시정지 상태였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자 오류가 생긴 로보트마냥, 몸은 굳고 생각도 멈추었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관계와 약속을 말로 듣자 정신이 돌아왔다. ‘싫어.’

이후로 나는 그 제안을 할 때 그의 태도를 종종 떠올렸다. 준비된 듯한 말들, 어쩌면 나의 고민과 불안을 들으면서 그는 이미 생각해왔을 것이다. 경제력이 내게 절실한 문제인 만큼 그 제안이 나에게 솔깃하리라고 계산했을지 모른다. 나는 솔직히 직장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내가 준비하던 진로는 보통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일이었다. 좋아하는 일로 강의를 하는 것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왠지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 들어가는 일은 두렵게만 느껴졌다. 왜, 어떻게 두려운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냥 숨이 막혔다. 오죽했으면 취업 문제로 상담소를 찾았겠는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라? 내가 상상한 건 좀 더...'라는 느낌을 받고, 그 느낌을 거슬러 더듬어가며 20대 시절 나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조금만 심사가 뒤틀리면 “내가 벌어들인 돈 쓰지 마”라며 으박지르곤 했다. “사회에 나가면 누가 네 사정을 봐줄 것 같느냐”는 말도 자주 들었다. 어느새 내가 상상하는 직장이란 아버지를 닮은 상사와 선배가 잔뜩 있는 곳이었다. 아버지처럼 부조리한 궤변을 늘어놓는 상사를 참아야 하고 야근과 회식이 강요되는 곳만 있을 것 같았다. 이력서를 쓰고 자소서를 쓰는 것만으로 엄청난 압박을 느꼈다. 거절당하고 떨어질 것이 뻔하게 느껴져서 힘이 쏙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직장문화를 두려워했을 뿐, 경제력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나는 20대 시절 취업에 주저한 나를 오래오래 탓했다.

그런 못한 상태라서 가해자가 못된 짓을 할 수 있었나 싶어서.

다시 사건 직후의 상담으로 돌아가면 나는

이 모든 자책과

혹시 나는 가정파괴범?

혹시 내가 유혹했나?

혹시 무의식적으로 원했나?

혹시 약점을 보였나?

빛나간 위로,

(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가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들리는 )

이 혼란스러운 생각들 공포감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상담사 선생님은 ...



## 질책 1

### 신고해야 해요, 미래의 다른 피해자들은 생각 안 해요?

사건 직후 상담의 막바지 즈음 나는 혼란, 자책, 공포 등 오만가지 감정으로 범벅된 상태였다. 상담사 선생님은 내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유했다. 안 그래도 마음도 열리지 않았고, 공포에 질려있던 나는 더더욱 얼어붙었다. 신고? 경찰에 찾아가나? 아버지의 직장인 경찰서에? 동료들이 수군대는 와중에 몸 둘 바를 몰라하는 아버지를 상상했다. 대뜸 화를 내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퍼부을 아버지가 떠올랐다.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성숙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거나, 감정이 올라오면 일단 아무 말이나 내뱉어 내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 잦았다. 이후에 자신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정작 엉뚱한 것으로 자책하며 마음 아파하시곤 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 눈에 선했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사건에 지친 나는 그것까지 겪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절대로 부모님께 말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만약 신고한다고 결심한다고 해도, 증거로 무엇을 들고 갈까? 사정도

삽입도 없었다. 내 몸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언젠든 나를 불러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는 아주 강압적으로 굴지는 않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나에게 등에 팔이라도 둘러달라고 불평을 하다가 ‘다음에 하자’고 그는 말했다. 가해자가 삽입을 포기할 정도로 반응하지 않은 내 몸에 감사했다. 내 평생 미워하고 싫어하던 내 몸이 처음으로 내 편으로 느껴진 밤이었다. 하지만 그건 물증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어내는 말이 아니냐며 의심을 살 수도 있었다. 사건은 고사하고 내 결백을 어떻게 증명하지? 더더욱 신고할 생각이 들지 않았다.

부모님 생각, 증거, 수사에 대한 상상에 숨이 막혀오는 나에게 상담사가 말했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미래의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나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상상하고 있었다. 화를 내는 아버지, 가슴을 내려치는 어머니, 수군대는 사람들, 가해자의 아이들의 미소가 어그러지고 울음을 터트리며 나를 원망하는 상상, 가해자의 아내의 (아마도 남편이 아닌 나를 향한) 분노... 나는 나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했다. 심지어 가해자의 평판도 걱정했다. 하지만 나만 조용히 하면... 모든 사람이 예전처럼 지낼 수 있었다. 내가 이타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미래의 피해자들에게는 마음이 나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어쩐지 판단 실수를 해 피해자가 될 사람은 나 말고 세상에 없을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신고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상담사는 고집스럽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할 게 아니라고, 미래의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신고를 해야 한다며,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 한번 더 말했다. 그 때에 화가 났다. 내가 나만 생각하고 있다고? 사건이 벌어지는 내내, 나는 계속 거절하거나 싫은 티를 내면 상대가 기분이 상할까봐 걱정했다. 어떻게 나갈지와 같은 궁리는 하지도 않았다. 여기 있기 싫어서 판생각을 하는 것을 들킬까, 혹시나 무례할까봐 걱정했다. 그리고 그게 나의 패착이라고 생각했다.

그 와중에도 '착한 딸, 예의 바른 학생, 친절한 여성'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평생 들어온 말대로 한 것 같은데 나는 무슨 꼴이 되었는가? 그 수많은 규칙과 바른 말들 중에 왜 나를 챙기고 나의 마음에 대해 묻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는 건가? 그런데 또 사회적 의무를 우선시하라니? 그게 나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니!! 지켜야 하는 것 따위, 타인을 우선시하는 것 따위에 모두 화가 났다.

### 위로 3

## 내가 원하는 것이 뭘까?

후에 현실적으로 혼자 다시 신고를 천천히 따져보았지만 역시 하지 않기로 했다. 상담사 선생님의 질문을 따라 신고를 할까 말까를 오가는 것은 그만두었다.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었다. 안전과 안정감. 복수나 짚값이라는 말에 움직이지 않던 내 마음이 이 두 단어에는 일렁였다. 그때 간만에 머리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혹시나 그 사람이 그 사건을 빌미로 나를 협박해올 수도 있지 않을까, 부인이 알고 나서 나를 꽃뱀으로 몰아가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들었다. 안전과 안정감이 흔들리는 일이었다. 그럴 순 없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나를 회유하려고 걸어온 전화를 받았다. 녹음기능을 켜고 가해자에게 일부러 '사건'이 있었던 밤을 언급했다. 그는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놀랐냐며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하고 혀를 찼다. 그 녹음파일과 함께 그동안 멘토 시절부터 주고받았던 메일이나 문자를 모두 모아 한 곳에 깊이 처박아 놓았다. 그게 사건으로부터 몇 주 뒤였다. 진로로 선택했던 분야와 직업을 모두 포기하고 가해자의 연락을 차단했다. 가끔 그때의 나를 떠올리면, 어설피고 어려서 실수도 많이 했다. 그러다 가끔 한 번씩 놀랍도록 단호하게 강단 있는 결정을 내려서 밀고 나갔다. 그런 면 덕분에 그나마 지금껏 살아남았나 싶다.

## 자책 5

### 죽고싶다

하지만 살아남았을 뿐, 주로 죽고 싶었다. 이후로 종종 나는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보았다. “20대 초반의 여대생을 호텔방으로 부른 50대 중년남성.” 신문 기사에 이렇게 냈다면 난 뭐라고 생각했을까? 나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뻘했다. 몇 년 뒤, 여동생과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있었다. 한 여중생이 토막살해 당한 사건이었다. 알고 보니, 동네 오빠로 지내던 남자 고등학생이 ‘호기심’에 모텔방으로 불렀다고 했다. 그녀를 성폭행하려다가 ‘실수’로 죽였고, 당황해서 토막살인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였다. 여동생은 모질게 말했다. “멍청하게 부른다고 왜 가?” 나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삼키며 펑펑 울었다. (가족에게 사건을 밝히지 않은 선택에 따르는 대가는 가혹했다. 이후로 가족들은 종종 알지도 못하는 사이 나에게 끔찍하게 느껴지는 말을 했고, 나는 홀로 눈물을 삼켰다.)

나도 그들의 말에 동의했다. 왜 가? 왜 저항 안 해? 왜? 왜? 왜? 스스로가 너무 멍청해서 너무 어리석어서, 사건 이후 내 판단이라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멍청한 나 자신과 24시간을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었다. 사건 이후로 나는 자주 죽고 싶다. 꾸준히 죽고 싶다는 생각을 반복한다.

하지만 나는 그를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 같은 존재로 느끼고 있었다.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매력 있는 성인으로 비춰질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적어도 나에게 나 자신도 상대도 성적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쩐지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면, 나의 맥락과 생각이 변명과 명칭한 생각으로 들렸다.

〈 덜 명칭해지려고 사건에서 내 맥락을 지운다. 객관적으로 뻔한 일에 걸려든 나 자신에게 화만 난다. 죽고 싶다, 내가 싫다. 무기력하다. 명칭한 실수를 한다. 덜 명칭해지고 싶다. 내 맥락을 지우고 생각한다. 뻔한 일이고, 내가 싫다. 죽고 싶다. ... 〉

이것을 몇 년 동안 반복한 뒤에야 알았다. “객관적으로” 라는 말이 때로 얼마나 몰지각하고 어리석은 태도일 수 있는지를. 감정적 거리를 두고 이성적으로 보는, 객관적 시선은 생각보다 현명한 시선이 아니다. 때로는 보려고 가까이 가야만 보이고, 온 힘을 다해 들으려고 노력해야지만 들리는 것도 있다. 감정적인 시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 세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남녀가 헤어지는 것은 수시로 일어났다. 이제 막 이별한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해준다고 그 친구가 느끼는 이별의 고통이 가지지 않는다. (그 사실을 읊어댄 사람의 뺨에 고통만 늘어날 뿐.) 하지만 자신의 이별 경험을 오롯이 녹여낸 솔직한 노래

가사는 수많은 이의 마음을 달래주어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치유와 연결, 그 힘을 이후에 글쓰기와 독서모임을 하면서 배웠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조금은 덜 죽고 싶어 진다.

#### 위로 4

###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사건 이후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을 별하는 일은 안중에도 없었다. 난 오로지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가족들은 당연히 나를 전과 같이 대했다. 가족들의 눈빛과 말이 다정하든 매섭든, 그들의 눈에 비치는 나는 사건 예전의 나였다. 그때만 나는 다시 중력을 찾은 느낌이었고,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때만 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척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때처럼 일도 생활도 해내기를 바랐다. 때문에 나는 전보다도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 사건에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증명하려고 애썼던 것 같다.

“그건 나쁜 일이고 나쁜 큰 일이야. 하지만 그뿐이야, 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은 아니야. 그건 나를 바꾸지 못해.” 이 말을 반복해서 되뇌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자주 토를 하고 싶었고, 살아있기가 버거웠다. 이후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에 바닥이 아니라 천장을 걷는 느낌이었다, 나 혼자만. 거의 모든 감각이 엉망이었다. 귀는 울리고, 배는 고프기도 하고 안 고프기도 했다. 애초에 그 감각들이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감각에 따라 내리는 판단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잘못된 사람을 믿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나의 판단력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사람들은 웬지 멀게 느껴져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운동장 저 멀리 사람과 대화를 하는 기분이 들곤 했다. 이따금 명해지는 일도 많아졌다. 세상은 예전과 그대로 활기차고 긍정적이었다. 모두들 희망을 품고 더 높은 연봉과 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을 향해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만 거꾸로 뒤집혔고, 같은 세상에서 다른 부분을 보며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하는 세상의 그림자 부분, 사건 전에는 (나 역시) 있는지도 몰랐던 곳으로 나는 처박혔다. 생각보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였다. 나는 죄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그곳으로 소외되고 분리되어 버린 느낌이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치도 채지 못했다. 나 홀로 “이게 뭐지?”를 멍청하게 반복하며 증력을 잃은 채로 살았다. 밝고 건강한 사람들의 주변 언저리를 떠다니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다.



그렇다고 알아주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위로는 당시에는 내 일상생활을 도와준 위로였지만, 되돌아 보면 가장 길을 돌아가게 하고 치유를 막은 위로였다.

## 위로 5

### 뭔가 잘못되면 경보음이 울리는 세상

중력만 잃은 게 아니라 빛깔도 잃어서 세상이 많이 흐려졌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대충 뵈었다. 그랬더니 또 어찌저찌 살아졌다. “이게 되네? 근데 아무도 모르네? 이대로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도 들었다. 쇼크 상태, 아마도 그게 가장 정확한 말인 것 같다. 그리고 그게 4~5개월은 갔던 것 같다. 그때 별짓을 다 했다. 무료상담도 받아보고, 안 듣던 새벽 클래식 라디오도 찾아 듣고, 비운세를 따라 춤도 춰보았다. 춤을 추면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아서 꽤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힘들어서 오래 할 수는 없었다. 대신 아예 몸도 현실도 잊을 수 있는 미드와 영화를 탐닉했다. 버퍼링이 차길 기다리는 찰나의 순간은 끄적했다. 나는 아직 나를 계워내지 못하고 나 자신과 붙어 있었고, 꿈도 직장도 없이 페인처럼 살고 있는 현실이 몰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문구점 알바를 시작했다. 어느 날 문득 예쁜 펜을 보는데  
훔치고 싶어졌다. 처음 느껴지는 충동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물건을 훔  
치고 숨기는데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들키지 않고 집으로 돌아  
가는 길, 실망감이 몰려왔다. 성취감이 아니라 실망이라니? 내심 뿔 기  
대했던 건지 꿈꿈이 생각해보았다.

나는 안심하고 싶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커다란 알람이 울리면 안심  
이 될 것 같았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신호가 울려 퍼지는 안전  
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바라  
는 것보다 세상은 자주 고요했다, 물건을 훔쳤을 때도 성폭행을 당할  
때도. 소위 말하는 '현실'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다. 아동바동 살 필요가  
있나 싶어지고 심드렁해졌다. 훔쳤던 펜은 쓰지도 버리지도 못한 채로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펜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만 경보음이 울  
리고, 세상은 여전히 고요하다.

## 위로 6

### 글쓰기 : 세상이 경보음을 내어주지 않아서

몇 달째, 증력과 빛깔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글을 썼다. 조금씩 내  
가 세상으로 돌아왔다. 그냥 일기와 쪽글이었다. 오랜만에 쓴 글은 분

노로 가득했는데, 가해자 대신 나와 부모님을 향한 분노로 가득했다.

대화는커녕 욕박지르기만 하는 아버지가 미웠다. 그 분노를 쓴 일기장을 훑쳐본 어머니가 노발대발한 어머니가 미웠다. 이후로 나는 좋아하던 일기를 쓰지 않았다. 분노도, 꿈도, 불안도 어머니에겐 무가치한 감정이었다. “느끼지 마, 그런 건 그냥 느끼지 마. 웃어.” 어머니가 자주 해주던 말이 저주같이 느껴졌다. (일기를 썼다면, 가해자의 께름칙한 언행을 놓치지 않고 의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성폭행을 당할 때 난 판 생각을 하며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그가 말을 걸면 어색하게라도 웃으며 답했다. 사진 내내 나는 오로지 모텔방 천장의 그림을 열심히 보고 열심히 잊었다. 그건 내가 학교 수업 시간에 많이 하던 것이었다. 나는 평생 매일 반항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는 연습을 하며 살아왔구나 생각하니 또 토가 나올 것 같다.

다르게 살자. 세상이 경보음을 울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내 안에서는 경보음을 울린 느낌이었다. ‘안돼! 안돼! 예전과는 다르게! 다르게!’ 그런 식의 글을 쓰자 중력이 조금씩 돌아왔다. 땅에 발을 붙였다는 느낌이 돌아온 건 그로부터도 한참 후였지만, 적어도 뒤집혀진 느낌은 들지 않았다. 나는 글을 쓰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여전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라는 취업은 버겁게 느껴졌다. 대신 책과 글로 밥벌이를 하며 먹고 살길을 찾는다는, 한 인문학 공동체를 찾게 되었다.

그즈음이 사건으로부터 6년 뒤, 미투운동이 시작되었던 때이기도 했다. 비로소 세상에 커다란 알람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나도 미투운동에 더 귀 기울였어야 했다. 너무 멋진 일이고 혼자가 아닌 걸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삶이 분주했고, 삶이 서툴러서 그것만으로 벅찼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미뤄두기로 했다. 나는 그때 이후에 다가올 많은 질책들을 막을 창과 방패를 얻을 기회를 놓쳤다.

## 미련한 또는 강한, 나는 살아있다

30살에 뒤늦게 시작한 연애는 금세, 그리고 끔찍하게 끝났다. 당시에 나는 인문학 공동체라는 독특한 곳에서 공부도 하고 연극도 하면서 꿈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에게서는 호그와트 같은 곳이었다. 매일이 충만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도 만났다. 그런데 그와 만난 지 5개월 만에 그 꿈이 악몽으로 변했다. 계기는 남자친구의 사소한 불평이었다. 내 얼굴에 자꾸 여드름이 나자 남자친구는 나와 달리 썩안 피부의 여자들을 들먹이며 비교하고 투덜거렸다. 마침 질과 외음부에 불쾌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여드름도 불쾌감도 호르몬 문제인가 싶어서 산부인과를 찾았다. 그리고 예상외의 진단을 받았다.

칸디다균을 비롯해 3가지의 균과 '자궁경부암 고위험군 바이러스' 52번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문제는 성생활을 시작한 지 채 4개월이 안되었는데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고 공격적이라고 했다. 공포감이 느껴졌다. 내 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멍청하게도 그리고 절실하게도 내 머릿속에는 '우리'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그를 불러내었는데, 그는 이미 짜증이 나 있었다. 밤이라 피

곤한가보다 미안해하면서 내가 말을 꺼냈다. ‘내가 성병에 걸렸대, 너도 검사해 봐.’ 그는 노발대발했다.

“내가 왜 병원에 가야 해? 나는 병원에 가는 걸 원래 싫어해. 누나는 왜 이래? 왜 이렇게 겁에 질린 거야? 그냥 의사선생님이 약 먹으라고 하면 약 먹고, 수술하라고 하면 수술하면 되잖아. 나는 만약에 고추암 걸려서 고추 자르라고 하면 그냥 자를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 말 하려고 꼭 나를 불러야 해? 누나는 블랙홀같애. 누나를 사랑하니까 누나를 기다릴게요. 그런데 내 사랑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

말문이 막혔다. 그 다음날 그는 내게 오랜만에 집에 같이 가고 먼저 말을 건넸다.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를 보자 그때서야 분노가 올라왔다. 하지만 동시에 안심도 했다. 완전 이상한 놈은 아니구나, 잘못된 걸 아는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어제는 내가 자비심이 없었던 것 같아. 오늘 카렌 암스트롱이 ‘자비’에 대해서 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잘 읽히더라고. 누나 덕분에 책이 속속 들어왔어.”

나는 그때 딱이 돌았다. 병원의 지시대로 한 달 정도 밤늦게

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아이는 실망과 좌절감이 잔뜩 섞인 얼굴로 편의점에서 유자차를 사서 내 손에 쥐어주었다. 헛웃음이 나왔다. 나는 허탈하고,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이후에 온갖 사고를 저질렀다.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기숙사의 규칙을 어기고, 친구들과 싸우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남자친구와 이후 어찌저찌 만나기는 했지만 서로 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성병 검사비가 얼마나 비싼지(그래서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남자는 그냥 3~6개월 잘 씻으면 알아서 낫는다더라와 같은 이야기만 했다. 여자에겐 어떤지, 병에 걸렸을 때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는 언급도 한 적이 없다. 나와 달리 그의 마음속에 '우리'는 없었고, '그 자신'만 있었다. 같은 병이지만 여자가 치러야 하는 값은 달랐다. 여자들은 2년 이상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 딱히 치료 방법도 없었다. 면역력을 높이고 술담배를 안 하는 정도? 면역력을 높여라, 의사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게 다였다. 바이러스는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후에 자궁에 여러 병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언제 검사를 받을 거냐라는 말을 할 때마다

버럭버럭 화를 낼 뿐이었다. ‘누나를 위해서는 안 받아도 앞으로 만날 다른 여자들을 위해서는 받을 거예요.’라는 말을 들었다. 이걸 너무 파렴치해서 차마 남에게 말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헤어지더라도 그를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지켜줄 필요가 없었다. 놀랍게도 아무도 그를 탓하거나 혼내지 않았다. 오히려 한 선생님은 ‘애, 그게 그렇게 심한 병이니? 난 난소도 잘라냈어.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그 남자애의 신체결정권을 침범하지마.’와 같은 말을 하며 남자애를 감쌌다.

결국 그 애는 나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유는 같이 있으면 재미가 없다고 했다. 그는 다른 여자아이와 항상 붙어 다녔고 사람들은 모두 수근거렸다. 그러나 ‘젊은 남자애 마음이 변할 수 있지’라는 말이 덧붙을 뿐이었다.

또 스피노자 세미나 시간에 ‘미움은 사랑이 변한 것’이라는 구절은 그 남자아이가 나에게 퍼부은 막말을 미화시키는 말이 되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미워했을까!) 불교에 심취한 중년여성은 나에게 다가와 위로인지 경고인지 이런 말을 건네었다. ‘사람은 인연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단다. 너에게는 나쁜 사람이었더라도, 다른 사람과 만나면 그 애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줄거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



는 결론의 말을 이어갔다. 이후 그가 내 첫경험이고 내가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잊지 못했다. 경전을 줄 줄 외던 그녀에겐 드문 일이었다. 한 선생님은 내가 있던 말던 그 남자 아이를 소중히 바라보며 ‘원래 살갓을 곁친 사이에서는 가장 본연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야.’와 같은 말을 했다. 물론 잊지 않고 나에게도 한마디를 해주었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인거야. 으이구~’ 병에 걸린 것도, 남자의 마음이 변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 되었다.

세상에는 짧은 남자를 위한 말이 참 많았다. 반면 짧은 여자에겐 꾸짖고 부정하는 말만 참.. 많았다. 그의 변심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나의 분노는 어리석고 귀찮고 감정적이고 유치하다고 했다. 처음에는 너무도 상식적인 것 같은, 그의 잘못과 그의 파렴치함에 눈돌리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받아들여가기가 힘들었다. 매일밤 잠을 못 이루고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는 날이 이어졌다. 온몸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있었다. 나의 꿈, 나의 호그와트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 나만 마음을 바꾸면 될 것 같았고 그렇게 했다. 그러자 ... 내가 부서졌다. 나는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8kg가 빠지고 입 안과 위는 항상 불타는 느낌이 들었다. 불교에 심취했던 중년여성도 다시 등장해서 나에게 요즘 너무 예뻐졌다고 칭찬을 해주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하소연을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눈물이 핑 돌아서 고개를 숙였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고 눈가만 불탔다.  
그날도 먹은 게 없었다.

8개월 동안 고집을 부리다가 죽겠다 싶은 순간이 왔다. 꿈과 삶을 버리고 살기 위해 실패자가 되는 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나는 그 8개월을 두고 미련하다고 했고, 이후 상담사 선생님은 강하다고 말해주었다.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그 정도까지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이제 그 힘을 스스로를 지키고 위하는 데 쓰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때는 끼이끼이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내며 울었다. 그즈음에는 먹은 게 많았나보다.

3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방황 중이다. 얼마 전 어머니가 집을 보고 왔는데, 그해에 내가 죽을 뻔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다. 이 사건들 이후로 가스라이팅, 개소리, 싸가지 없는 인간은 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동시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종종 공황을 느끼는 몸이 되었다.

아직도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몇 번이고 심장을 주먹으로 내려친다.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게 하는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소화되지 못한 경험을 글로 풀어보려고 애쓰다 일주일이 갔다.

이렇게 미련한 또는 강한, 나는 살아있다.

”



## 목화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장보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해서 집단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강간을 당한 후 10년 정도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다가 명상을 시작하면서부터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다. 이 글에는 아픈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내가 할 수 있었던 일과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를 함께 담았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공감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

# 내가 죽던 날

## 내가 죽던 날

십여 년 전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집에 혼자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귀찮아서 그 소리를 무시하고 하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신발을 신은 채 내 방문을 열었다. 순간 너무 당황해서 지금 일어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생각해보니 엄마가 나를 혼자 두고 외출하면서 대문과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고 그사이 집에 도둑이 든 것이었다. 그 남자는 칼을 들고 있었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퍼부었다.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어떻게 저항해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당할 수밖에 없었다.

## 엄마라는 여자

끔찍한 시간이 지나가고 집에 돌아온 엄마에게 그사이 일어났던 사

건을 말했다. 그런데 엄마는 내가 잘못된 거라고 했다. 강간당한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엄마라는 사람이 한 것이다. 엄마는 내가 화를 내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화를 내지 못 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나는 엄마에게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오랫동안 초인종 소리를 무시한 것이 잘못이었을까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리고 엄마는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그런 엄마의 행동은 평소와 별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엄마는 내 삶이 무너져버린 순간에도 상처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그 집에서 지내는 것이 불안했지만 당분간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를 앉혀 놓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면서 현관문을 도어락이 달린 철문으로 바꿔 달라고, 1층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해 달라고 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엄마에게서 들었던 그 말이 마음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서 미안하다는 말이 듣고 싶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꺼냈지만, 엄마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끝내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런 엄마를 보면서 나는 누구인지도 모를 그놈보다 엄마에게 더 많이 화가 났다. 그런 사람이 내 엄마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본가에 다녀온 후에는 몸이 아팠다.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그런 엄마를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서 무한반복 재생되는 시간이 끝없이 이어졌다. 죽어버리지도 못하고 미칠 것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미친 듯이 많이 울었다. 밥을 먹을 때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고 토할 것 같아서 아무리 잘 챙겨 먹으려고 애써도 하루 한 끼밖에 먹을 수가 없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 더 이상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져서 내가 자살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다.

그러다가 걷는 것도 힘들고 서 있을 힘조차 없어서 죽을 병이라도 얻은 게 아닐까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아쉽게도 죽을 병은 아니었고 전해질결핍성 탈수라서 하루 동안 입원해서 수액을 맞았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아마도 난 부모님에게 너무 화나고 슬프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 후 1년 정도 딱히 어떤

목적도 없이 집에만 있지 않고 장 보러 마트에 가고 잡지라도 보러 도서관에 다녔다.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아마도 트라우마가 일어난 그 장소를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본가를 떠나 혼자 살게 되었을 때 나를 둘러싼 공기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뭐라도 해보야겠다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학교 다닐 때 심리학을 가르쳐주셨던 교수님을 찾아가었다. 교수님은 “살다 보면 그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했다. 내 삶이 무너져버렸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다. 이미 엄마에 대한 상처 때문에 수면장애가 생겨서 십년 정도 잠을 잘 못 자고 있었고 오빠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 시도까지 했었던 나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강간 그 자체보다 가족이 상처밖에 안 된다는 것,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더 많이 아프고 힘들었다. 더 이상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5년 동안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고 살았다. 그렇게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고 나는 혼자가 되었다.



## 죽고 싶지만 죽고 싶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고 너무 많이 지쳐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아낼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아무리 애써도 트라우마가 일어나기 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죽을 때까지 이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사랑 받았던 기억 하나 없이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만 가지고 죽는 것이 억울해서 죽을 수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뭐라도 해봐야겠다

5년 후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다.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기술교육원에서 1년 동안 조리외식 과정을 공부했다. 평일에 매일 하루 8시간 정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었다.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수업이 끝나고 자격증 연습 모임에서 같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고 웬지 모르게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 5년 동안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고 살다 보니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사람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진 것이다. 1년 과정을 무사히 마쳤지만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되었다.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또다시 5년 동안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고 살았다.

## 있는 그대로 본다

돈을 벌어서 스스로를 책임지기 위해 일하면서 조직문화에 대한 화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나에게 친구가 위빠사나 명상을 권유했다. 명상에 관심이 있었던 나는 그 제안을 바로 받아들여 명상 코스를 신청했다. 명상과 봉사를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다. 명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정리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봉사를 하며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내가 짜증을 잘 내고,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마음속에 화가 많이 쌓여있다는 것을 알았다.

몸의 감각과 마음의 감정은 연결되어 있는데 감각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다 보니 감정을 좀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감정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되면서 나 자신을 더 잘 돌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내가 나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고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힘들기만 하던 오빠와의 관계를 끊고 소통하는 것이 힘든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지 않으면서 거리를 두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 세상에 같은 상처는 없다

10대 이후로 20여 년 동안 수면장애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는지라 몸이라도 고쳐야겠다 싶어서 한의원에 갔다. 한의원 원장님이 간단한 검사를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시더니 몸에는 병이 없다고 했다. 그분은 성폭력 트라우마에 대한 간접 경험을 갖고 있어서 내게 성폭력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셨다. 나는 처음 본 남자 사람 앞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많이 울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도와줄 수 없으니 전문가를 찾아가 보라고 했다. 그날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다음날까지 집단상담 신청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제출했는데 며칠 후 참여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건 후 12년 만에 트라우마에 대해서 충분히 다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집단에서 내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듣고 또 들었다.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듣는다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는 것이라서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 당시 엄마에게 느끼지 못했던 화가 끓어올라서 그 감정을 감당하기가 더 힘들었다. 엄마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냥 참고 견딜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웠다.

얘기를 하다보니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아이처럼 울면서 말할 때가 많았다. 그런 나를 보면서 어떤 참여자가 “이제 더이상 애가 아니니까 싸워야죠. 나도 부모 도움 없이 싸우고 있는데...” 라고 했다.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집에 가는 길에 눈물이 닳고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 그 참여자는 정신과 약을 처방받으면서 재판 중이었던지라 많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과 살아온 환경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처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마다 상황과 입장이 달라서 생각만큼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주고받는 것은 어려웠지만 강간이라는 것이 나만의 아픔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고 말하다 보니 회피하고 싶었던 사건을 직면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는 다룰만한 것이 되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마주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 강간에 대한 공포와 악몽이 사라졌다.

## 마음을 나누는 것

그리고 작년부터 소통하고 갈등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비구조화 개방형 집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집단에서 나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집단에서 얘기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여성주의 집단에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해서 또 다시 마음이 힘들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용기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내 얘기를 듣고 내 대신 화를 내주고 울어주는 사람도 있었고, 깊은 이해와 공감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강간에 대한 공포와 악몽이 사라진 후에도 관련 기사를 보는 것이 힘들었는데 집단에서 충분히 말하고 공감을 받고 나니 강간에 관련한 기사를 볼 수 있게 됐다.

## 또 다른 나 엄마

비구조화 개방형 집단을 하면서 엄마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엄마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설날 본가에 갔을 때 엄마는 상담을 받고 있는데 재미있다고 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엄마의 딸이라서 엄마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하지만 엄마는 재미있는 것도 없는 사

랍이고, 변화하려는 의지도 없는 사람이라서 소통을 기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이상 엄마에 대한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지금까지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울면서 말했다. “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라고는 상처밖에 없어서 원망이라도 하고 화라도 내고 싶은데, 엄마가 죄책감을 자극하면 내가 잘못된 게 되잖아! 부모가 자식한테 잘못된 게 먼저지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먼저 잘못할 수 있어! 말을 못 해서 화를 못 내서 병이 난 거라고!” 엄마는 내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것보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이상 그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참여 중인 집단을 운영하는 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 가입을 고민하게 되었다. 내가 힘들었던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함께하고 싶어서 가입했다.

가입 후 자신의 트라우마에 대한 글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트라우마에 대한 글을 써서 밴드에 공유했다. 그렇게 말로만 표현하던 얘기를

글로 표현했더니 내 삶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정말 많이 애썼구나' 싶으면서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글쓰기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 글쓰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다.

### 절망한 사람을 알아보다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십여 년 동안 누군가에게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기 위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힘들었다. 살아가다 보니 비슷한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보고 더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내가 상처받은 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와 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먼저 편안해져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글을 쓰면서 그 당시 충분히 마주할 수 없었던 감정을 직면할 수 있었고 조금은 더 편안해졌다. 이 글을 읽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편하기만 한 트라우마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길...



”



## 소신



나는 위력 강간 생존자다.

강간은 물론

여성의 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은 2차 가해는

나를 더 숨 가쁘게 했다.

마지막 유서라 생각하고 이곳을 두드렸다.

생존자 6명이 모였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의 사연들은 맞얌힘 속에 있었다.

# 여성의 몸이라는 이유만으로

## 장면 하나,

2019년 12월 24일, 나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난처에 있다. 내 뱃속 생명체는 3개월이다. 딱히 모성애가 있어서 아이를 뱃속에 두는 게 아니다. 낙태 불법이다.<sup>1)</sup> 살인자라는 소리도 듣기 싫다. 만사 포기하고 싶다. 주변은 온통 크리스마스 장식과 캐롤로 가득하다. 나 빼고 모두가 신나 보인다.

## 장면 둘,

내 아버지는 제자들과 교원들에게 친절한 대학교수다. 하지만 집에 서는 반대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가셨다. 집에 잘 들어오시지 않는 아버지,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맞아 말을 잘 못 하는 오빠, 그 외에 나의 보호자는 어

---

1) 편집자 주: '낙태죄'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후 2021년부터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머니뿐이었다.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안 보인다. 두렵다. 난 밥을 먹지 못했고 보름 후에 쓰러졌다. 고신대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스트레스로 입이 돌아갔다고 한다.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다시 학교에 갔다. 학교 마치고 정문으로 나오는데 어머니가 보였다. 난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다시는 어머니가 내 곁을 떠나면 안 된다. 그 후 난 엄마가 날 떠날까 봐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등 집착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요리하시는 어머니 곁에서 책을 보는 등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애썼다. 아버지께 잘 보이면 어머니는 안전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난 엄마에게 제발 이혼하시라고 했다. 엄마는 싫다고 하셨다. 우리 때문에 이혼을 못 한다며 지금까지도 계속 원망하신다. 엄마의 비명이 창문 밖 팔공산을 울린다. 어머니는 이 동굴 속에서 나와 나를 생각이 없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가장 사랑한다. 그리고 가장 미워한다.

### 장면 셋,

2018년 4월, 나는 형사 고소를 했다.

2016년 1월 30일, 지도교수에게 논문 지도를 받기로 한 날, 성폭력을 당했다. 울면서 아버지께 바로 전화 드렸다. 자식은 부모가 원하는

자식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제자는 지도교수가 원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면 내 미래가 위협해진다고 말씀하신다. 엄마가 생각났다. 난 그 후 학교 성상담센터에서 상담만 받다가 2017년 7월, 학교에 가해자를 신고했다. 가해자 교수와 친한 학교 교직원들은 그 이후 날 괴롭혔다. 가해자는 내가 부산에 어디에 있는지 다 찾아내 날 괴롭혔다. 그리고 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성상담센터장마저 가해자를 위해 움직였다. 가해자의 권력은 그만큼 어마어마했다. 2017년 12월 11일, 징계위원회에 대면으로 참석했다. 난 이날 권력남용이란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죽으란 법은 없나 보다. 징계위원회 30분 전인 오후 2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N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과의 만남 첫날이다. N선생님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다(징계위원회 참석 당일 오전, 1366에 전화했다. 거기서 천주교성폭력상담소를 연결해주셨다. 상담소에 전화했을 때 받은 분이 N선생님이었다. 상황을 요약해서 선생님께 전달해드렸다. 선생님은 지금 바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다). 내 생애 첫 조력자가 나타났다. 오후 2시 5분,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학교 본관 1층 엘리베이터 앞, 난 선생님께 성범죄를 당한 내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소신 씨, 방에서 바로 옆에 사람이 다 벗고 누워 있어도 성폭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라고 말씀하셨다. 처음으로 내 수치심이 내 것이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다. 그 후 선생님과 함께 징계위원회장을 들어갔다. 증언석에 앉았다. “이소신 씨, 교수 신○○이 총각인 줄 알았어요?” 위원장들의 가해자 편을 드는 말들은

가관이었다. 난 전혀 궁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상담센터장의 말, 징계위원장의 직속 부하들의 말, 이 사건 담당의 부총장의 말들... 녹음 기록을 속기록 기사님께 요청하여 글로 풀어 밝힐 것이다. 대학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총괄하는 부총장이, 가해자가 이 학교 출신 교수이니 딸을 선처시키는 게 좋을 거라고 대학 동기 친구인 아버지께 말했다(아버지의 휴대폰 속 자동 녹음되는 곳에서 두 분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찾았다). 아버지는 부총장 이야기를 하며 나에게 선처하라고 하셨다. 듣기 싫었다. 공동체 내에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난, 경찰에 신고했다.

### 다시 장면 하나,

피난처 창문을 통해, 밖에 있는 크리스마스트리를 보고 있다.

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생명을 지우는 건 최악이라고 배웠다. 안다. 알지만 지금 난 너무 힘들다. 그리고 강간 이후의 임신. 이조차도 억울하다. 억울해 미치겠다. 사건도 임신도 감당이 안 된다. 사건으로 생긴 PTSD 치료약도 먹어야 하는데... 판단력이랑 분별력이 점점 떨어진다. 억울함과 짜증에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을 왕창 토해냈다. 그리고 나니 배가 고프다. 어제 상담 후 심리상담 선생님께서 주신 바른 김

밥 한 줄을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몸에 좋아 보이는 채소가 가득했다. 한 개 한 개 꽤 큰 김밥이었다. 뱃속 아이에게 좋을 거 같았다. 김밥 하나 먹고 맛을 음미했다. 평온해진다. 두 개.. 세 개... 네 개째에 눈물이 또 터졌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지금이 있음에 고마움 하나, 김밥을 주신 심리상담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 두 개, 그래도 내가 지낼 수 있는 피난처가 있음에 고마움 세 개, 아이를 지우면 살인자라고 하는 가부장제가 심은 내 죄책감에 네 개째...

## 장면 넷,

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4년 전부터 만나온 남자친구와 약속한 결혼식을 올렸다. 내가 정신이 나가 있는 동안 모든 결혼 준비는 남자친구가 다 했다. 남자친구는 서원 설립 때부터 일했다. 그래서 서원이 있는 부산 남천동 근처, 삼익아파트에 전셋집을 구했다. 근처에는 서원 직원 식구, 사장 선생님과 준이 살았다. 준은 아빠의 친구 아들이다. 오빠지만 오빠라고 부르기 싫다. 준은 사건 당시 CCTV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기소가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나에게 했다. 그리고 준이 내 성폭력 사건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남편을 통해서 들었다. 서원 사장도 준과 마찬가지로였다. 난 성폭력 사건 이후 증거가 불충하다는 얘기를 수십 번 들었다. 그게 한이 된 건지. 녹음병이 생겼다. 정확히는 증거

남기기 병인가... 사람을 못 믿는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을 때 꼭 녹음을 해둔다. 그리고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녹음기 스위치를 누른다.

내 녹음기 속에는 내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담겨 있다. 엄마, 아빠, 남편, 사장 선생님, 준, 학교 조사위원회 사람들, 학교 징계위원회 사람들, 가해자를 도와주는 학폭 책임자 부총장, 가해자의 후배인 상담센터장, 또 그의 부하 직원인 학교 심리상담 선생님, 징계위원장의 학교 행정 부하 직원들의 목소리... 가해자 측 변호사의 목소리. 사건 후 내가 겪은 2차 가해... 믿은 사람들에게 받은 이 배신은... 나에게 공황장애를 만들어 주었다. 가해자는 범죄자라 그렇다 치자... *올타리라* 믿었던 가족들은 학교는...*왜... 대체 도와주지 않는 걸까...*

가해자들은 남편 직장까지 찾아가서 협박했다. 집까지 찾는다. 그들은 내 시대까지 찾았다. 나에겐 출구가 없다. 혼자 노포역에 있는 1366으로 갔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장면 다섯,

2019년 5월 10일 아침, 눈을 뜨고 누워서 멍하니 천장을 봤다. 출산 예정 10일 전이다.

만삭인 배를 어루만졌다. “법정에 나랑 같이 출두하는 마지막 날이야, 오늘도 신이 지켜주시겠지.” 찬양곡을 틀었다. 물로 몸을 따뜻하게 데웠다. 평퍼짐한 옷을 입고 그 위에 상담소 N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프렌치 코트를 걸쳤다. 부른 배를 감출 수 있는 옷이기 때문이다. 강간 당해서 법원에 출두하는데, 원치 않는 임신 중이란 게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시선 때문이다. 여자로 태어난 거부터가 잘못된가? 잘못된 그들이 했다. 근데 왜 나에게 죄책감을 주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도무지 이해 가지 않는다. 세상에 있어서 여자의 태도는 정해져 있다. 거기에 어긋나면 여자를 아니꼽게 본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 난 옷으로 배를 가리고 오늘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가야 한다.

법원이 양산에서 아주 멀다. 경찰서든 법원이든 가해자 주소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래도 내 목소리를 내려면 가야겠지. 기차 타고 가면서 판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생각했다. 그리고 메모도 했다. ‘꼭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서울북부지방법원 502호, 호흡을 가다듬고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법정 가운데에서 날 노려보는 여자가 앉아있었다. 얼마 전, 가해자 부인이 내 사진을 오려 붙이기 해서 내게 별쪼 것이라는 협박 문자를 보낸 것이 떠올랐다. 식은땀이 났다. 숨이 막혔다. 판사님께서 어서 나가시라고 외쳤다. 가해자 부인은 나가지 않고 한참을 날 노려봤다. 성폭력 재판은 비공개 재판<sup>2)</sup>이라 증인과 증인 변호사 외에는 있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은 결국 법원 경찰에 의해 끌려갔다. 놀란 마음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기차에서 판사님께 드릴 말씀을 다 까먹었다. 증인석에 앉았다. 배를 쳐다보았다. 가슴이 뚱뚱뚱뚱. ‘너 괜찬니?’. 속으로 아이한테 얘기했다. 판사님과 검사님, 그리고 가해자 측 변호사님들께서 하시는 질문들에 씩씩하게 답했다. 검사님과 변호사님께서 함께 우셨다. 마치고 나가는데 N선생님과 변호사님께서 속 시원하게 잘 말했다고 말씀해 주셨다. 선생님과 법원을 완전히 나가서 가해자 측이 따라올까 봐 재빨리 지하철을 타러 갔다. 선생님을 환승역에서 보내드렸다. 난 자리에 앉아 감사 기도를 드렸다.

12일 뒤인 5월 22일 밤 9시 38분,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다.

---

2) 편집자 주 : 성폭력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신문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재판장이 비공개 여부 및 신문 방식을 결정한다.

## 장면 여섯,

2020년 2월 12일, 올릴 일이 없는 내 전화기에 알림이 올린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분의 카톡이다. 우리나라 법으로, 위력으로 인한 강간법이 보통의 강간 법보다는 형의 기간이 짧은 점과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사님이 내려주신 구형 기간보다는 판결의 형 기간이 짧아 안타깝다는 메시지와 1심 판결문을 보내주셨다.

1심 판결은 2월 7일에 났다. 하지만 난 아이를 돌봐야 해서 서울에 가지 못했다. 이 아이는 내가 이성을 잃을 때마다 이성을 더 잃게 한다.

여느 날과 같은 하루를 보냈다. 젓을 먹이고 따뜻한 물에 아이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의 곁에 있다.

## 장면 일곱,

2020년 6월 25일, 아버지 어머니께서 대구 집이 있는데 굳이 내가 있는 집 근처에 월세로 방을 얻으셨다.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엄마가 돼 가지고 우울하면 되냐, 이 세상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서 다 이겨낸다.” 등등 싫은 소리를 하신다. 아이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난

도망치지도 못한다. 죽고 싶다.

### 장면 여덟,

2020년 11월 말, 마지막 판결문이 도착했다. 마지막 판결까지 유죄가 나고 가해자가 교도소에 갇는 데도,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오래도록 나무에 줄이 묶인 낙타가 그 줄이 풀린 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난 그 낙타이다.

그래서인지 회복은 더 더뎠다. 가해자에게 납치를 당하고 사지가 잘린 뒤 하체만 강간당하고 있는 날, 내 스스로가 제3자처럼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악몽, 몸속에서 무수히 많은 까만 애벌레들이 나오는 악몽, 가해자를 고소한 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는 악몽들은 계속됐다. 더더욱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다.

### 장면 아홉,

2021년 2월 18일, 어머니 아버지의 집에서 목을 매달았다. 그날 악몽도 여느 날과 같았다. 오후 2시경, 난 병원에 가기 위해 아이를 돌봄

선생님께 맡겼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약을 타고 돌아왔다. 오후 4시경, 아무도 없는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갔다. 불이 꺼진 거실 인터폰 밑에 가만 앉아있었다. 천장을 보니 인터폰 바로 위에 끈을 묶을 수 있는 단단한 걸이가 보였다. 그리고 옆을 보니 커튼을 묶는 긴 끈이 보였다. 그 끈으로 인터폰 바로 위, 장식처럼 생긴 걸이에 매듭을 지었다. 인터폰 버튼이 작동되지 않게 인터폰 전원을 껐다. 부엌 의자를 들고 와 의자 위로 올라갔다. 매듭지는 끈 위로 내 목을 맡겼다. 의자를 발로 찼다. 숨이 조였다. 순식간에 난 하얀 세상으로 갔다. 눈을 뜨니 난 구급차 안이었다. 그리고 다시 눈이 감졌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난 응급실이었다. 죽는 데 실패했다. 대학교병원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정황을 물으셨다. 난 질문에 모두 답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왔다. 주치이는 부모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아버지가 짜증내시는 모습을 봤다. 병원비...

강간을 당했을 때 내 생각 하신다고 나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내 변호사 선임 비용 이야기를 했을 때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하신 아버지가. 이번에도 그는 병원비에 투자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하셨다. 주치의께서는 이대로 환자를 퇴원시키면 다음엔 반드시 죽어서 돌아올 거라고, 자살 시도 환자들의 경험을 털어놓으셨다. 날 퇴원 시키고 내가 죽으면 환자 방관으로 의사 자격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셨다. 역시 아버지께서는 소용없다. 근데 나도 입원할

생각이 없다. 아무도 없을 때 난 링겔을 뽑고 병원 밖으로 도망쳤다. 병원에서 전화가 수십 통 왔다. 한 번 죽고 내 주변을 다시 둘러보니 놓친 부분들이 떠올랐다. 나와 함께 발맞춰 뛰어준 활동가 선생님들과 생존자들...

기회를 봐서 꼭 죽을 거다. 하지만 그때는 꼭 내 모든 얘기를, 이 사회가 약자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꿰뚫어 보고, 이 사회를 조금은 바꾸고자 하는 사람, 성인지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에 꼭 다 털어놓고 죽고 싶다.

### 장면 열,

2022년 4월 11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은유 작가님과 함께하는 성폭력 생존자 글쓰기 치유 수업한다는 공지가 떴다. '어? 내 방 책 작가님이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재빨리 제출했다. 그럴 줄 알았다. 금세 모집 마감이었다. 문자가 왔다. 신청 당첨 문자다. 기뻐했다. 같이 집단 상담한 친구들 단독방에 자랑했다. 다음에 기회 생기면 꼭 하고 싶다고 한다.

은유 작가님과 유랑 선생님, 그리고 우리 생존자들 6명은 각자 삶의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목소리를 냈을 때, 목소리를 낸 후 가부장주의의 사람들의 언행 때문에 아팠지만, 같이 내 피해를 사람들에게 끝까지 다 말한 날, 우린 이미 이겼다. 아니 우리 모두가 이겼다.

서로의 글을 공유하며 든 생각. 혹시 우리가 목소리를 낸 그 순간부터 승리한 게 아닐까. 판결이 유죄가 아닌 무죄가 나도, 신고를 했든 안 했든, 그 모든 일을 털어놓은 그 시작부터 우리가 이긴 게 아닐까. 혹시 그게 지금 사회를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감히 말해본다.

글을 쓰며 다시금 깨닫는다. 나를 연대해 주는 이들이 있다. 나 역시도 그들을 위해 연대하고 있다. 내 존재의 기쁨을 여기서 찾는다. 장담컨대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고 있을 거다. 우리의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곁에서도 함께 할 거다.

”



솜씨가 부족해 미학이 없는 글을 쓴다.  
건강해지고 있다.



## 액(厄)풀이

1	2	1	2
3	<b>4</b>	3	<b>-4</b>

내 사주팔자를 4x2 박스 모양으로 보면 여섯 글자의 모양과 위치가 같고, 두 개의 글자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쉽게 풀어 이야기하자면 마치 호랑이 굴에 들어간 모습인 전생과 현생의 삶의 환경은 같지만, 그것을 대하는 내 태도가 정반대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전생에는 호랑이신을 모시고 순응하는 제사장 그리고 현생은 못된 호랑이를 길 들여 우리에게 가두거나 그를 몰아내는 활동가의 모습이다.

*계속 활동가로 사세요.*

이보세요. 저는 더 이상 활동가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누구를 가두고 몰아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주풀이를 끝내고 담배 한 대를 물면서 계속 생각했다. 호랑이는 무엇이고 누구인가. 사는 게 순탄치 않았

는데 그게 호랑이 때문이었나? 나는 지금까지 그 호랑이를 잡겠다고 애 썼으나 그 존재가 무언지도 모른 채 그것을 잡는다고 지금까지 허공에 대고 파리채를 휘둘렀다.

호랑이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고 했던가. 지금까지 '똑바로'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들여다 보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내 약한 마음을 푹푹 숨기고, 숨기고 숨겨서 잃어버렸다. 숨긴 게 너무 많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잡아야 하는 게 호랑이인지 토끼인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정상'으로 살기 위해 숨기고 잃어버린 것들이 결국 커지고 커져 나를 치러 왔다. 나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켰다. 울부짖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 몇 번이나 죽으려고 시도했다. 최근 마지막(이라 믿고 싶은) 자살 시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 숨기고 숨긴 호랑이 하나를 찾아냈다.

잘 만났다. 이 호랑이야.

이제는 너에게 지지 않고 너를 이야기하리다.

내가 정확하게 몇 살 때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다. 가족 중 누군가의 집에 모여 어른들은 술을 마

시며 얼큰하게 노는 모습이 지금도 조각조각 생각이 나고 나는 그들이 노는 거실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준비된 이부자리에 누워 잠을 잤다. 그러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마음으로 잠을 깼다. 막내 삼촌의 손이 내 팬티 안에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자는 척을 했다. 절대 깨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삼촌은 내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나는 괜히 몸부림을 치는 척, 곧 내가 깰 수도 있다는 경고를 그에게 보냈고, 그는 그때서야 손가락을 빼고 도로 내 옆에 누워 잠을 잤다.

그 뒤로 막내삼촌은 나에게 늘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외면할 수는 없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너무나 실천하고 싶었던 유씨 가문은 언제나 내 눈앞에 막내삼촌을 세웠고, 얼마나 그가 날 사랑했는지, 아꼈는지, 보살폈는지 설명했다. 그래. 실제로 삼촌은 날 많이 사랑했다(고 들었다). 내가 갓난 애기 때부터 나를 데리고 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날 사랑했고, 바쁜 엄마아빠를 대신해 대학 수업이 없을 때마다 나를 챙겼다고 한다. 근데 그게 사랑인가?

유씨 가문은 여름 겨울을 막론하고 계절 휴가가 있을 때마다 캠핑을 챙겨 다녔다. 나이를 먹었다고 피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었다. 캠핑을 다니는 계절이 바뀔수록 내 가슴은 점점 커져갔다. 막내삼촌을 보는 게 더 불편했다. 여름 계곡에 물을 담그고 나와 물에 젖은 티셔츠에 내 가

숨모양이 보일 때면, 어릴 때의 생각이 계속 났다.

내 나이 스물다섯에, 유씨 가문 장남이었던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삼촌에 대한 힌트를 주었다.

아빠, 내가 집안을 위해서 뭘 얘기 안하고 사는지 모르잖아. 제발 삼촌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마. (그냥 싫어, 싫어, 싫어, 싫어. 날 만졌어. 무서워. 날 보호해줘. 제발 날 보호해줘. 아빠. 제발 내 눈에 삼촌을 데려 오지마. 내가 누굴 위해서, 무얼 위해서 말 안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제발 알아줘. 제발 알아줘. 나만 생각해줘. 내가 당신 가족이잖아. 내가 당신 딸이잖아. 그 사람을 버려. 그 사람은 날 만졌어. 그 사람은 아빠의 가족이 아냐. 내가 아빠 딸이야. 내가 아빠 딸이라고!!!! 시발 내가 아빠 딸이라고 그 새끼가 아니라!!!!)

아빠는 들은 채도 안했다. 내 말이 들리긴 했을까?

나는 서른이 다 되도록 그 숨겨둔 말을 하지 못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을수록 그 상황에 수백 번, 수천 번, 날 놓으면서 그를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작은 지점을 찾고자 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나를 지키지 못하고 그를 지키려고 했을까.

---

2021년 12월, 나는 이사를 했다. 엄마와 나는 가구 하나 없는 빈 오피스텔에 앉아 있었다. 밤이 되자 조명도 없어 껌껌해진 원룸 속에서 티비 화면으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던 나는 엄마에게 얘기했다.

나 작은삼촌한테 성폭행 당했다.

20년을 묵혀둔 말이 그냥 나와 버렸다. 비어있는 방을 뭐라도 채우고 싶어서 그랬을까. 내 짧은 말 한 줄이 7평 원룸을 빙빙 돌며 가득 메워 버렸다. 엄마는 처음에는 놀라 다시 물었다. 나는 한 번 뚫린 입을 막을 수 없어 지금까지 막내삼촌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술술 풀어버렸다.

몇 번을 그랬노.

바닷가에서 발에 치이는 돌맹이 수만큼.

왜 지금까지 말 안했노.

엄마 같으면 말 할 수 있었겠나.

엄마는 비어있는 방에서 나를 제외하고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붙잡고 끼이끼이 울었다. 나도 따라 울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도 내가 왜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하필 그때

말했는지 알 수가 없다. 유씨 가문과 막내삼촌의 사이가 멀어져서 말할 수 있었던 걸까? 활동가 생활을 하면서 이를 갖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말하고 죽어버리려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알려주려고?

엄마는 집으로 돌아가 아빠 먹살을 잡았다. 들리는 소식에는 아빠한테 개새끼, 소새끼 등 있는 욕이란 욕을 다 퍼부었던다. 아빠는 그 뒤에도 한동안 나에게 연락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다.

*진아, 그냥 다 잊고 살면 안 되겠니. 아빠가 다 가지고 갈게.*

*너 아픈 거 내가 다 안고 갈게.*

나 안 아픈데? 아빠가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는데?

---

내가 이야기를 하면 세상이 터지고 가족이 터지고 막내 삼촌이 터져 버릴 줄 알았는데 세상은 조용했다. 엄마아빠도 조용했다. 유씨 가문도 조용했고, 세상도 조용했다.

반 년이 지났는데 세상 조용한 게 싫어서 일을 치기로 했다. 글을 써서 유씨 가문 사람들에게 하나- 하나- 다 택배로 보내버려야지. 다 알려버릴 거야.

그렇게 혼자 침대에 누워서 분을 못 이기고 씩씩- 거리고 있을 때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다.

진아, 아빠가 삼촌 고소한대.

블라인드가 쳐져 있지 않아 아주 맑은 하늘이 내 눈앞에 보였고, 바람은 크게 불어 창문이 순간 쿵 하고 닫혔다. 통화를 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내 눈에서 딱 눈물 두 방울이 흘러 내렸다.

아빠는 돌고 돌아 막내삼촌을 버렸다.

엄마, 나 그 얘기만으로. 그걸로 됐다.

---

나는 그날로 호랑이를 잡았다.

나는 호랑이를 무서워했으나, 제 정신이 아닌 핏가닥 한 순간도 있었으나, 결국 그를 잡았다. 자 이제 호랑이는 제 자리에 있을 우리 안에 갇혀 있으라. 나는 이 세상 안전하고 즐겁게 살겠다.

부디 내가 오래오래 살 수 있길.

## 무거동<sup>3)</sup>

2000년 3월

너가 말했지. 우리엄마가 저-쪽 창문으로 널 지켜봤는데 너가 너무 이쁘다고 집에 데려오면 선물을 주겠대. 같이 가자.

난 미심쩍었어. 너는 나보다 키가 컸고, 검은색 검도 도복을 입고 있어서인지 나는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했어. 끈질긴 너의 부탁 끝에 난 너를 따라 한 아파트로 들어섰지.

두려워서일까. 엘리베이터 안, 내 입은 설틈없이 종알종알거렸어.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나. 내가 기억나는 건, 말하는 내 입 틈으로 너가 혀를 집어넣고 내 치마를 들치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었다는거야.

내가 올랐는지 놀라 열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기억나지 않아.

---

3)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너는 10층인가 13층 인가 다다르자 복도 맨 끝 집을 가리켰어.

저 집으로 들어가

나는 대답도 못하고 그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

너가 날 따라오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고 내려가자 나도 집에  
가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었어.

너 9층, 난 9층 1/2쯤 계단에서 엘리베이터 작은 창문으로 9층을 지  
나 내려가는 너의 머리칼을 보았어. 너한테 내가 계단에 있다는 걸 들  
키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온 힘을 다해 숨을 참았어.

8층, 8층 1/2 계단

7층, 7층 1/2 계단

6층, 6층 1/2 계단

5층, 5층 1/2 계단

4층, 4층 1/2 계단

3층, 3층 1/2 계단

2층, 2층 1/2 계단

1층, 1층 1/2 계단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엄마!

: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

홀로 아파하고 있을 당신에게 :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펴낸곳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이 김혜정  
펴낸날 2022년 9월 30일  
편집 유호정  
저자 고유, 두부고양, 목화, 소신, 승진  
함께한 사람 은유  
디자인 서희 (lisy@naver.com)  
인쇄 인터프린디고  
전화 02-338-2890  
이메일 ksvrc@sisters.or.kr  
홈페이지 www.sisters.or.kr  
후원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본 저작물은 '충북대학교'에서 '2020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충북대70주년체(작성자:충북대학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https://www.chungbuk.ac.kr/site/pr/sub.do?key=1798>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제주도청'에서 '2010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주고딕(작성자:제주도청)'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https://www.jeju.go.kr/jeju/symbol/font/infor.htm>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순천시청'에서 '2020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순천체(작성자:순천시청)'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https://www.suncheon.go.kr/kr/info/0003/0001/0003/>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